

## 입찰담합 적발시 계약금액 10% 배상

- 공정한 경쟁 조성 및 공단 손실 방지 도모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간 입찰 담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업체들의 담합에 따른 공단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공단에 계약금액의 10%를 직접 배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체의 이익을 직접 환수해 사전에 입찰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공단의 손실을 보전할 수도 있다.

계약처 관계자는 "향후 발주하는 단기 등의 모든 철도공사에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적용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건설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2차례 유찰

- 재공고 마감결과 현대로템만 응찰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김포시가 위탁한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열차운행시스템 구매사업 공개입찰 재공고 마감 결과 현대로템 컨소시엄 1개 업체만 응찰해 또다시 유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입찰에서도 1차 입찰과 마찬가지로 현대로템 컨소시엄 1개업체만 응찰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유찰돼 앞으로의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김포시와 추가 재공고, 수의계약 등을 협의, 추진하게 된다.

김포도시철도사업은 2018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전 구간을 국내 최초 지하경전철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총연장 23.61km, 정거장 9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조6553억원 규모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정례화

- 동반성장 강화 및 철도산업의 장기적 발전기반 마련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성능 우수제품을 발굴·구매하고 안전한 철도건설과 철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일 본사 상황실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올해 공단에서 구매할 토목건축설비(37건, 1,424억원), 전철전력(76건, 3,754억원), 신호통신(41건, 2,850억원) 등 철도관련 물품의 발주 계획을 설명하고 공개입찰 시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응찰을 유도하는 한편, 불편사항 등 업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상담회 개최 후, 매 짝수 달 마지막 주에 신기술인증제품(기술표준원), 우수조달물품(조달청), 구매조건부 개발제품(중소기업청) 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분야별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에게 생산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우수제품은 설계 등에 반영함으로써 철도건설 사업에 고품질의 자재를 조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공단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정부관장정책을 적극 수행해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율을 '11년 3.75%(54억)에서 '12년 5.75%(92억)로 증가시켰고 '13년에는 구매상담회를 통해 15%(370억)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4월까지 공단 홈페이지의 KR전자조달시스템에 상설 「KR 구매상담회」 전용창을 개설해 오프라인의 구매상담회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전자 구매상담회」로 고도화시킬 예정이다.

계약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공급자간 소통의 장으로 활성화시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초기판로를 열어주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해 동반성장 강화 및 철도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2년도 철도건설 안전사고 전년대비 25% 감소

- 취약시설물의 체계적 점검과 작업장비 관리 강화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지난해 철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전년대비 25% 감소했으며 연평균(2004~2011년) 사고건수에 비해 50% 이상 감소, 최저 수준의 재해율('11년 0.142-'12년 0.082, △42.2%)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해율 0.082는 우리나라 건설산업 평균재해율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그 동안 철도 건설사업비가 계속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 공단이 건설분야 최고의 안전관리를 시행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단은 지난 2011년 10월 철도건설현장에 대한 품질·안전관리체계를 새로 개편해 연약지반, 고가교량 뿐만 아니라 송전철탑, 궤도운반 작업까지 취약개소를 확대하고, 관리단계를 9 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취약개소별 점검 회수를 차등화하고, 세부점검기준에 의한 계층별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진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시행해 왔다. 또한 사고발생율이 2배 이상 높은 저가낙찰·법정관리·안전사고 발생현장도 취약개소로 지정해 특별관리와 점검을 시행했으며 신규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했다.

특히 사고발생 즉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현장에 안전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높이는 등 안전 관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사고발생 업체와 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였다.

품질안전평가처 관계자는 "최근 안전사고 유형이 안전시설의 결함 보다는 작업장비에 의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작업장비 점검 및 취급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을 강화하고, 작업장비에 대한 점검여부를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위 : 건,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04-11년(평균)	12년
사고건수	32	37	34	24	34	28	35	20	30.5	15
건설사업비	25,842	32,055	35,113	38,772	45,523	61,008	55,732	56,677	43,840	67,100
재해율	0.54	0.45	0.36	0.19	0.21	0.17	0.128	0.142	0.274	0.082

\* 재해율 :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사상자의 비율

## 영남본부, 철도공사와 상호 협력관계 다짐!

- 부산지역 공단/공사간 실무협의회 개최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함께 안전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철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상호협력력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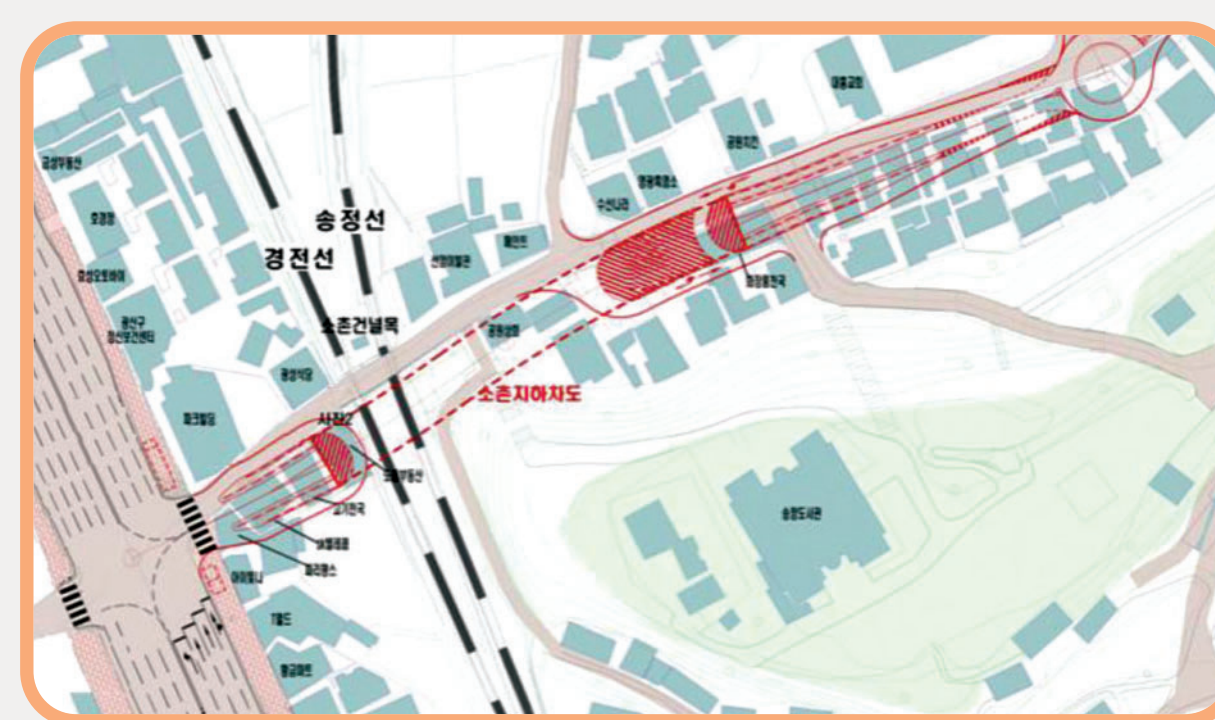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열차 안전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열린 협의회는 양 기관의 본부장을 비롯해 각 분야별 처장, 부장 등이 참석

해 14개 안전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는 철도산업의 파트너로서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또한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영남본부 이종하 기자>

## 광주광역시 소촌 철도건설목적 지하화 추진

- 소촌건설목적 입체화 협약 체결...이달부터 착공 -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건설목적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소촌철도 평면건설목적 지하화로 입체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 13일 총사업비 226억원 중 147억원은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79억원은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촌건설목적 입체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본부 관계자는 "하루 운행열차가 60회인 철도선로상의 평면교차로에 보행자 2700여명, 차량통행 3300여대 등이 통행하는 소촌건설목적 2016년 11월까지 지하화되면, 열차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남본부 한성우 기자>

## '13년 1분기 충청지역 시설분과 협의회 개최

- 대전도심 3단계 안전시공과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강화 협의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지난 18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와 함께 대전도심 3단계 안전시공과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충청지역 시설분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 본부는 흉도 제지하도도 가설교량 설치 차단작업 협조 안전을 상정했고 철도공사는 재해예방사업의 적극 반영과 관련한 안전 3건을 상정했다. 양 기관 대표위원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운영기관 안전강화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준공사업의 인수인계와 하자보수 시행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합의했다.

<충청본부 임상민 기자>



## 「'13년 1/4분기 시공·설계분야 VE보고회」 개최

- 37개 과정 선정...185억원 예산 절감 기대 -



강원본부(본부장 이동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의 2개 사업 추진관련,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지난 7일 본부 2층 상황실에서 「'13년 1/4분기 시공·설계분야 VE보고회」를 가졌다.

이 날 보고회는 평가위원으로 본부장, 처장 및 각 PM부장이 참석했으며 공사관리관 총 13명이 안전 발표 및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개선과제 총 38건 가운데 채택된 37건의 과제는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증 후, 설계변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85억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되며 타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은 검토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본부는 분기별로 'VE보고회'를 개최하고 추가 예산절감 항목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강원본부 김철순 기자>